

우리의 꿈

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

[문화가 있는 삶]

다함께 누리는 문화! 세계인도 즐기는 문화!
“세계는 지금 한국스타일입니다.”

문화는 지역·계층·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.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, 자유롭게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'문화국가'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우리나라의 문화는 예로부터 아시아 문화 발전의 초석이었으며, 현재에도 K-pop, 스포츠, 문화유산 등 세계문화를 주름잡고 있습니다. 이는 어느 특정인의 재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열정과 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'한류바람'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

차별 없는 문화, 맞춤형 문화,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1인1예술 및 1스포츠 활동 지원,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,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,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.

세계인들이 선호하고, 존경하는 문화,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
문화재정 2% 달성

새누리의 진단

-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.14%(3조7,194억원)으로 OECD 국가 평균 1.9%에 크게 못 미침
-1999년 1% 달성 이후, 10년이 지난 지금도 1% 내외에서 정체

새누리의 약속

-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, 문화복지 확충, 콘텐츠·관광산업 육성, 전통문화의 보존·활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책확
- 문화예술, 영화, 체육, 관광, 콘텐츠산업,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관련법 제·개정
-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%수준으로 점진적 확대

「문화기본법」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

새누리의 진단

-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리는 ‘문화국가’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「문화기본법」 제정
 -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,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서 분리
-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
 - 주민자치센터, 시·도 및 시·군·구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,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새누리의 실천

- 「문화기본법」 제정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개정

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

새누리의 진단

-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, 특히 문화예술 체육활동은 매우 취약한 상황

새누리의 약속

-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
-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,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
-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
-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

새누리의 실천

- 「보조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
-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

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

새누리의 진단

- 대도시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심화
 - ※ 공공도서관 24.8%, 박물관 41.7%, 미술관 61.2%, 문예회관 22.1%, 문화의 집 31.9%가 수도권에 집중
- 프로그램,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문예회관 등 이미 확충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미흡
- 지역·도시별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 중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, 체계적·지속적 지원체계 미흡
-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 특화 전략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·지원
-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지원 강화 등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균형발전 도모
-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
- 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사업 강화
- 국·공립·사립 문화시설 공연·전시프로그램 '지방순회제' 지원 강화

새누리의 실천

-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

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「예술인 복지법」이 제정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도입에는 미흡,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
- 창작단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창작을 지원하고, 기업 등의 문화예술 기부를 늘릴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「예술인복지법」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
 - 창업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
- 공연·영상분야 스태프 처우 개선
- 시·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
- 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, 후원인증단체 지원
 - 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

새누리의 실천

- 「예술인복지법」 개정
- 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소득세법」 개정
-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

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

새누리의 진단

- 콘텐츠의 원형인 문학·음악·무용·미술 등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영화 등 비주류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
- 문화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
-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문화기술(CT) R&D 예산확대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필요
- 어린이·청소년 저작권교육 강화로 범법자 양산방지 및 저작권 보호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
- 우수 학술·교양도서 선정·구입 지원 확대,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
- 독립·예술·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
-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
- 아동·청소년·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
-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(게임·음악·캐릭터·영화·뮤지컬) 집중 육성
- 문화기술(CT) R&D 예산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

문화 · 관광시설 확충

새누리의 진단

- 문화예술 창작시설 및 문화향유 기반시설 확충 필요
-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도서관 · 박물관 · 미술관 · 공연장 · 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
-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
- 문화콘텐츠 접목해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

새누리의 실천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
-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

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지방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필요
-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필요
-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
- 국립지방박물관 신·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
- 시·도지정 문화재 보수·정비 강화
-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
-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,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
- 문화재보호기금 확충

새누리의 실천

-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
-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

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

새누리의 진단

- 체육인복지 강화 및 취업 지원, 스포츠산업 육성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'문화기업' 설립, 현역·은퇴선수 고용 지원
- 국가대표선수,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부여
-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
- 스포츠산업 융·복합 클러스터 조성
-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

새누리의 실천

- 관련 법령 정비
- 단계적으로 예산반영

남북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

새누리의 진단

- 남북교류를 위해 문화가 앞장설 필요
- 한국스타일 소개 및 문화분야 공적개발 원조(ODA) 확대를 통한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및 남북예술가 공동창작활동 지원
- 북한 문화유산 복원·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, 디지털 DB구축
- 민족대통합 남북 스포츠교류 확대
 - 경평축구 부활, 태권도 교류전,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
-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(ODA)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단계적으로 예산반영

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, 관광복지 실현

새누리의 진단

-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관광은 복지 및 삶의 질의 관점에서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핵심사안이지만 국내관광 부진
-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실버관광 부상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여행향유권 강화 필요성 부각

새누리의 약속

- 「관광진흥법」 체계 재정비
-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
- 고령자·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(barrier free) 인프라 확충 -배리어 프리 숙박시설, 휠체어 탑승버스, 관광도우미 양성 등
- 초·중·고 대상 토요 체험여행 지원 확대 및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
- 관광종사원, 관광통역안내사, 투어컨덕터 등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
- 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, 폐광지역 리모델링, 슬로시티 관광 브랜드 가치제고,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성 등 기존 관광자원 적극 개발
- 자전거 관광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등 저탄소 관광레저 활동 증진

새누리의 실천

-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

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, 고부가가치 ·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

새누리의 진단

-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었으나 한국은 저가관광지라는 인식 만연
- 관광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비해 낮음.
 - WEF(세계경제포럼) 집계 133개국 중 32위(국가경쟁력 22위, 2011)
- 경쟁력 있는 차별적 브랜드 및 관광상품이 부족한 실정
 - 2010~2012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관광한국에 대한 매력적 이미지구축에 한계, 대표적인 관광자원 부족

새누리의 약속

-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
-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,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
-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,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
- MICE(회의 · 관광 · 컨벤션 · 전시회) · 의료관광 · 공연관광 등 고부가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및 K-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
- GCF(녹색기후기금)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

새누리의 실천

- 「관광진흥법」 개정
-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

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

새누리의 진단

- 국민 해외여행객 1,300만 시대에도 불구하고, 해외여행객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
- 관광은 정책도입기부터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, 경제수지 기여라는 측면에 정책목표를 두면서, 해외여행객의 안전에는 소홀
-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으로도모할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
- 해외여행객에 대한 재난재해, 납치 등(개인여행보험 제외 부분) 국민여행 보호 및 안전체계 확립
- 주요 관광목적지 안전여행정보 세분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
- 중소 관광기업 육성정책 추진
 - 2만여개 관광사업체 대상 기업고도화(기업IT인프라, 법인화 등) 및 전문화(업종별, 시장별)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

새누리의 실천

- 「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개정
-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